

#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코로나19 극복 동참

### 취약계층에 전달할 마스크 포장 봉사 진행 · 매주 수요일마다 실시하는 전 시민 소독의 날에도 적극 참여

전주시 마을공동체인 온두레공동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마스크 포장 봉사에 동참키로 했다.

19일 온두레공동체 회원 150여 명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스크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 온두레공동체는 취약계층에 전달할 마스크 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6일과 12일 봉사를 추진해 22만 매를 포장해왔다.

이날 봉사에는 올해 선정된 공동체들도 다수 참가했으며 직접 참가하지 못한 공동체들도 감밥, 생강차, 쿠키 등 위문품을 보내 공동체 정신을 함께 나눴다. 포장된 마스크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자 등 동별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두레공동체는 매주 수

요일마다 실시하는 전 시민 소독의 날에도 참여해 각각의 사업장과 공동체 공간의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세정제 비치 및 손 씻기, 사회적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 홍보하고 있다.

특히 '행복을 나누는 어울림'(대표 이광근), '꽃두렁 마을'(대표 전덕일), '전주비전포럼'(대표 임현) 등 각 마을을 대표하는 공동체들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공원, 버스 정류장, 상가 등에 매주 방역소독을 진행키도 했다.

김성남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자발적인 코로나19 극복 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돌려주고 마을을 안심시켜 주는 공동체들이 감사하다"며 "온 시민들이 동참하고 노력하는 만큼,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마을공동체인 온두레공동체 회원 150여 명은 19일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스크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

## “코로나19 방역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의료진 · 관계자에 간식 전달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감사를 전했다.

19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란)는 전주시청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보건소, 덕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연일 방역 작업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전주시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손수 만든 샌드위치 200여 개와 음료수를 후원했다.

또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평화동 소재 원광모자원을 시작으로 매주 사회복지생활시설 소독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김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분들을 위해 회원들이 모여 간식을 정성껏 만들었다”며 “맛있게 드시고 힘내셔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9일 박영규 전주친환경농조합 대표 등 조합 관계자와 관련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전주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 노후경유 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교체 시 500만원 지원

전주시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150대를 대상으로 '202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80대보다 2배 정도 확대된 규모다.

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

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통학차량으로 사용되는 노후경유 차량을 폐차 후 LPG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 중인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노후된 소형승합 경유차량이다. 단, 신청 물량이 미달하는 경우 노후 중형승합 경유차와 노후LPG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6일) 기준 전주

시에 1년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는 차량으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신차로 LPG 통학차를 구입하는 전주시민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주시청에 제출하고, 시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완산칠봉 산불 1시간40여분 만에 진화

19일 오후 2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과 산림 당국 등은 헬기 5대와 펌프차 20여대, 진화 요원 수십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산립 당국의 발 빠른 진화작업에 임야 0.2ha가 타올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뉴시스

## 전주시, 봄꽃 심어 코로나19로 사라진 봄 분위기 살린다

### 이달 말까지 팬지·비올라 등 13종 봄꽃 26만 본 도심 곳곳에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사라진 봄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봄꽃 식재에 나선다.

시는 새봄맞이 도심에 새단장하기 위해 호동골 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 팬지와 비올라, 크리스세럼, 금어초 등 13종의 봄꽃 26만 본을 도심 곳곳에 이달 말까지 식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

까지 각 동 주민센터와 동물원, 전주 시설관리공단 등에 5만 본을 배부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심 주요거리인 한옥마을 등 11개소의 도심 주요 테마 화단과 팔달로와 충경로 등 22개 노선에 배치된 1783여 개의 가로화분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봄꽃들을 식

재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색을 가진 비올라와 '사색, 사랑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진 팬지를 식재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활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호동골 양묘장에서 온도 관리와 물주기, 풀 뽑기 등을 진행해 봄꽃을 생산해왔다.

/김윤상 기자

## 친환경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 전주시, 현장 간담회 갖고 피해 발생상황 파악·방안 논의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친환경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돕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9일 박영규 전주친환경농조합 대표 등 조합 관계자와 관련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다음달 6일까지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의 피해 발생상황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친환경농산물 원예단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신선채소 안정생산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관로 확대방안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협의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송봉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관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영농조합원을 포함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